

“선유도 매립지 활용 사업계획 조속 실행하라” 익산시-하림, 농촌관광 활성화 맞손

군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환경봉 시의원 5분 발언

군산시의회 환경봉 의원은 14일 제 2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22... 군산시의 농장 행정, 선유도 매립지 활용 사업계획을 조속히 실행하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환경봉 의원은 군산시의 농장 행정, 선유도 매립지 활용 사업계획을 조속히 실행하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나 사업계획조차도 수정할 상황이라면서 초기계획서조차도 제출하지 않는 부서의 실태를 불태 답답하기 이를 때 없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도 제자리걸음을 중이며 업무보고에는 수개월째 8월 중 행정절차 이행이라고 되어 있고 특히 군산시의 제4차 섬발전사업 투자 현황과 추진실적을 보면 총 사업수는 23개로 이 가운데 11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2023년까지 마무리되었어야 하는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건설사업은 설계 문제로 표류하고 있고 2024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선유2구 물양장 조성 사업은 중지 중이며, 고군산 내부도로 개설 사업도 기간을 1년 연장하여 진행하고 있고 이제 2개월여 남은 2024년 말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9개 사업의 완료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면서 10년간의 사업계획에 있는

23개 사업 중 30%인 단 7개 사업만이 계획대로 추진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기간이 연장된 것을 볼 때 애초 계획 단계부터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했다면 사업 기간의 연장으로 발생하는 예산상의 손해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 지적했다.

환경봉 의원은 군산시는 당초 계획대로 국비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으며 국비만 확보하면 그만이나, 어떤 감사에서도 지적받지 않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면서 ‘선유도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 역시 원가심사 문제로 중단되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해당 매립지는 선유도 관광지 중심에서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기존 계획대로 해당 매립지에 ‘바람의 언덕·미디파사드’를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시방편으로 최소한 관광지 주차장 활용이라도 구상했어야 했다며 2020년에 매립된 토지를 어떤 사업도 추진하지 않고 4년간 방치하여 관광지로서 선유도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농장 행정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기에 본 의원이 누구나 강조해왔던 바와 같이 군산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당초 계획수립 사무터 기반 안에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한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업무협약 맺어... 도시·농촌 상생 모델 구축 최선

익산시가 (주)하림과 손 잡고 농촌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익산시는 14일 시청에서 정현을 익산시장과 정호석 (주)하림 대표이사, 최성문 익산시마을만들기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와 교류 확대를 도모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주)하림은 워크숍 장소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하고, 농촌체험 여행지 3곳 이상을 방문한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체험·숙박 이용시 사용 금액의 10% 할인을 제공

한다. 정현을 시장은 “농촌관광이 단순한 체험에서 끝나지 않고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환경·문화·역사를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홍보에 더욱 힘을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농업의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현을 시장은 “농촌관광의 활성화가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촌과 도시 간 상생 모델을 만들고, 농촌 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전북연구원, 정책간담회 개최

글로벌 신산업·K문화관광 거점 성장동력 마련 '머리 맞대'

군산시와 전북연구원은 14일 군산시청 민방위상황실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를 바탕으로 각 사업에 대하여 정책 논의를 개발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군산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사업 및 정책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코 탱크인 전북연구원과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한 주요 안건은 △공공형 위계이션 조성사업, △군산김매체험관 활성화 방안 마련, △도심권 고령친화 구역 지정 및 사업추진, △은과호수공원 아의 스케이트장 운영 등 총 4개 사업이다.

전북연구원은 주요 안건에 대하여 중앙정부 및 타 시군의 정책 동향 및 사례, 대응계획, 쟁점사항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으며,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군산시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특송화물 통관장 개장 등 성과를 얻어내며 더욱 성장하는 군산을 그려 나갈 시점에 와있다”라고 평가하면서, “군산시와 전북도, 전북연구원이 동반 성장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교통약자 전기차 이용 편의성 높여

장애인체육관·월명 공영주차장 등 총 9곳에 11기 설치 예정

군산시가 올해 12월말까지 공공정사, 공영주차장 등에 교통약자를 배려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등에 급속 충전기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부 공모사업에 민간 사업자(SK일렉트릭)를 지난 5월 선정했다.

설치 예정 장소는 장애인체육관 △월명 공영주차장 △서수면·성산

면·경남동 행정복지센터 △시민문화회관 등으로 총 9개소 11기이다.

특히 이번에 설치되는 충전기는 조작부 1.2m 이하로 하고, 충전 케이블을 경량화하는 등 몸이 불편한 시민들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을 목표로 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가족과 함께 볼차Go! 놀자Go!' ... 온라인 선착순 모집

26일 군산내향 일원에서 개최... 스트리트 사커·관광지 연계한 청소년 가족 행사 마련

군산시가 14일부터 스트리트 사커에 관심이 있는 타지역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볼차Go! 놀자Go!' 행사참여자 60팀을 온라인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26일 오후 1시부터 군산내향 일원에서 개최되며 참가자격은 군산시 외 지역의 8세 이상 13세 이하(2011년 1월 1일 출생 ~ 2016년 12월 31일) 아동·청소년이며, 연령별로 A그룹(8세~10세) 30팀, B그룹 30팀(11세~13세) 30팀, 두 개 그룹으로 나누어 경기를 진행한다.

스트리트 사커는 4.4mX4.4m의 작원 원형 모양의 경기장에서 다수가 아닌 1:1로 승부를 가리는 것이 특징으로 경기 시간은 전·후반 없이 3분 단 한 경기로 진행되는 짧은 축구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경기이다.



'가족과 함께 볼차Go! 놀자Go!'는 스트리트 사커를 관광지와 연계해 경기참여자 가족이 가족과 함께 군산을 방문하여 축구도 하고 관광도 즐길 수 있는 참신한 관광마케팅으로 기획되었다.

그룹별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군산사랑 상품권(1등 30만 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이 주어지며, 경기 중간중간에 이벤트 경기를 진행하여 함께한 가족들도 행사를 즐

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행사 참여는 군산시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가족과 함께 볼차Go! 놀자Go!' 게시글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시 관광진흥과(454-3349) 또는 행사 주관사(063-446-9228)로 하면 된다.

행사참가비는 1인당 3만 원이며 참가자 전원 2만 원 상당 군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참가 가족들이 군산에서 바로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이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부잔교(뜨다리 부두), 진포해양 테마공원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군산내향의 특별한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시, 16-19일 사회적경제

‘한미당-가을동행장터’ 개최

익산시가 사회적경제 한미당 행사로 ‘가을동행장터’와 ‘어울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을동행장터’는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전으로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익산역 맞이방에서 진행된다.

이번 판매전은 가치소비 실천으로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알리고, 홍보·판매의 장을 마련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들을 한 자리에서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이벤트로 제품 구매 고객에게 광없는 볼렛 참여 기회를 부여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18일 열리는 ‘어울마당 행사’는 지역 사회적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 간 관계와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민간플랫폼 '위기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익산시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민간플랫폼과 힘을 모은다.

익산시는 14일 시청에서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대표이사 고두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공감만세는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위기브(Wegive)'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광주 동구와 전남 영안군에서 지정 기부, 온라인모금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와 일본의 우수사례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자체 대상 컨설팅과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주)공감만세는 '위기브'를 통해 익산시 단계별 정보 제공 등 홍보를 비롯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활동에 대해 전반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익산시는 정부의 민간플랫폼 도입 정책에 발맞춰 (주)공감만세와의 협력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